

관광사업과 연계한 재래가축의 특산품화 방안

강 태 속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Plans to Use Local Animal Resources for Tourism

Tae Sook Kang

College of Applied Life Sciences,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of Jeju and a unique agricultural culture have helped to populate native domestic animals, such as Jeju horses, Jeju black cattle, Jeju swine, and Jeju chickens. These animals have been preserved owing to Cheju Provincial Livestock Promotion Institute's effort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is effort has stimulated to plan on producing local animals on a commercial basis. Further, it is thought that the products of those animals can be promoted in conjunction with tourism. This paper discusses how to make use of native domestic animals for tourism. The first idea is to use Jeju horse for horse racing. It is suggested to develop strategies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s well as domestic visitors to horse racing. Strategies include increasing seating capacity and employing workers capable of speaking English for the international tourists. The second idea is to develop local cuisines made from native livestock products that can

attract visitors. Lastly, the paper discusses promoting livestock products to in relation to tourism business to make Jeju livestock productio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y that help produce high quality livestock produces.

Key words : native domestic animal, use, tourism business

서 론

제주도는 예로부터 마을공동목장이 조성되어 소와 말들이 사육장소로 제공되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 중 산간지대에는 많은 골프장들이 들어서고 있고, 농작물인 감자, 약초재배 등이 확산되면서 초 식가축의 사육장소는 점차 축소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중산간지대의 임대지와 지가의 상승은 축산농가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외국산 육우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소 사육의욕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도 제주지방에서는 재래가축들이 많이 사육되어져 왔다.

도 축산진흥원에서는 60~70년대에 재래가축의 보존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오늘날까지 제주(재래)마, 재래 흑한우, 재래돼지, 재래 닭 등

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보존 사육되고 있어 이들 재래 가축의 증식과 더불어 실용화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은 마을공동목장과 중 산간 지대의 많은 목야지가 산재되어있고 기후적, 지리적 조건이 타 지역과는 달라 재래 가축을 사육하기에는 좋은 유리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제주 축산은 자원 보존 차원에서 레저 산업과 관광 산업의 연계된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새 천년의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축산업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새 천년에 수백만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를 찾았을 때 어떤 특화된 축산상품으로 하여금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새로운 시장 차별화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것은 우리 축산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천혜의 자연적 유리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재래 가축의 축산물 생산을 특화하고 안정화, 고급화, 저렴화에 주력하여 재래 가축의 차별성을 극대화함을 물론 관광과 연계한 특산품 화를 차차내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주마의 이용방안

'94년 UR 협상 타결과 '98년 금융위기인 IMF 사태, 2001년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 WTO/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추진과 한칠레 FTA 협상 등은 우리 축산업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에 외국에서 광우병 발생, 조류독감, 국내의 구제역 파동은 국내의 축산기반이 붕괴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써 앞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들의 소중한 보존하고 사육되어온 재래가축의 자원을 최대한 살려 축산농가 소득원이 다양화를 피하는 등 제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대 초 자원을 기반으로 한 흑한우 증식과 마필산업의 새로운 다양한 사업을 통한 축산 소득원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경마장을 시행 처로 한 제주마의 생산은

2001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제주마 생산자 협회가 작년에 설립되면서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차원에서 "제주마 육성목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주마의 활로를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부문으로서 제주마의 경마, 승마, 마상 쇼 등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마필산업의 기반 조성 유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마필을 이용한 경마 및 승마, 마상 쇼 등은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마필 육성책이 필요하다.

(1) 국제자유도시와 제주경마산업

① 경마산업의 변화

정부차원에서 평화의 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됨에 따라 제주에서의 외국자본 투자와 외국인 내도가 증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마산업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거주 외국인 또는 내도하는 외국인들도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다.

제주경마장에서 외국인 비율이 10%도 채 안되어 상당히 낮은데 그 원인을 보면 서비스나 홍보 부족보다는 관광산업 자체의 부진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되면서 외국인 입국이 증가되고 경마장에서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가 불가피하게 되리라 보여 진다. 이에 따라 경마시행분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전용실의 확충, 통역요원의 증원, 외국인 대상 볼거리 개발 제공 등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번에 서귀포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증가됨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서비스 개선차원을 넘어 기존 관람대 확충, 장외발매소 개설, 단방향 교차투표에서 서울↔제주간 쌍방향 교차투표로 제주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외국인이 경마를 관람할 경우 자국의 경마와 비교해 볼 것이므로 국가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외국의 경마시행체제 중 바람직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병행하여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즉 외국인에게는 특

이한 볼거리가 되는 경주 시행도 생각해 볼만하다. 제주마는 체고가 작고 특징이 있으므로 그 특징을 잘 살려 경주를 함으로서 더러브렛(Thoroughbred) 경주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다.

(2) 제주마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우선 축산분야, 재래가축과 연계한 관광사업들은 어떤 형태로 전개하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주마를 이용한 관광 상품화 하는 방안들은 경마, 승마, 마상 쇼 등 여러 가지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제주경마장

제주경마장은 제주 재래마의 보존과 육성, 지역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설립취지대로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에 와서는 도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순수 제주마 경주가 바람직하며 이는 WTO/DDA 협상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제주마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123개국에서 경주마로 채택하고 있는 더러브렛(Thoroughbred) 품종은 전 세계 공통의 혈통마로서 외부로부터 국제경마와 경매에 도입마를 참여하겠다는 강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순수 제주마는 유일한 국산 재래마로서 개량마와 같이 경주를 할 수는 없는 품목인 것이다.

2001년서부터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순수 제주마에 의한 혈통 등록사업의 실시가 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등록사업이 더욱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앞으로 점차 제주 교잡마 경주에서 순수 제주마 경마로 전환유도가 되어 2004년서부터 경마로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 방안들이 제주도 행정차원에서 마련되어 농가에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2년 서귀포에서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는 전 세계에 우리 제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브라질과 중국과의 예선경기 등은 제주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볼 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웃에 접한 중국인구는 13억 으로 그중 상류계층은 약 4(2)%로 예상해 볼 때 이들은 전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계층으로 분류해서 보면 52백만명(26백만명)이라는 숫자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의 인구이며 이들을 관광객으로 잘 유치할 때 앞으로 우리 축산분야에서 특히 재래가축을 이용한 상품화로 먹거리와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중국인들의 속성을 우리들 자신이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인들은 상술에 능할 뿐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내기를 거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들 한다. 홍콩은 국제자유도시로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 하에 있었고, 포르투갈의 지배 하에 있던 마카오는 타국에 예속되어 독립된 나라로 지난 2000년부터 2개 영토가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영국이나 포르투갈은 모든 이관절차를 마쳤다.

홍콩은 2개의 Royal Jockey Club에서 운영하는 경마산업을 운영하였고 특히 이들 두 지역은 인접한 중국인들과 관광객들은 Betting 과 Casino 에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도박의 나라 마카오, 홍콩은 중국인들의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회인 경마와 카지노 도박에 익숙해져 왔다. 앞으로 우리는 이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류할 수 있는 볼거리의 여건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제주경마장이 진정한 경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보다는 외국인에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위락시설 등을 국제자유도시에 준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도민 속에 진정한 경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경마장 경마는 1주일에 토,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주 5일제 근무가 올해부터 시행이 될 때 금요일을 포함한 주 3일간이 관광일정과 비행기 스케줄을 잘 짜서 관광 코스화는 물론 외국인 전용코너를 마련하여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서 마카오, 홍콩보다싼 입장료와 푸짐한 상품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한 유치전략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관람과 Betting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서 체류시간을 더 연장함으로써 그만큼 호텔 투숙비 등 체류경비를 더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제주도 경제는 물론 지방제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주경마장의 입장객이 제주인이 90%가 아닌 다양한 국내의 관광객들로 채워져 상품화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점이다. 특히, 제주와 서울 단방향에서 양방향 Cross Betting(교차투표)을 유도하여 제주에서도 직접 서울경마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말들의 상금을 걸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상호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내도 관광객들이 보는 것에서 즐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3) 제주마의 경주 활용 개선 방안

제주경마장이 개장한지도 이제 14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간에 행해져 왔던 제주마의 생산 및 경주활용에 대한 현안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지역 경마의 활성화와 제주 마산산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중요하다.

① 경주마 활용에 따른 현안 및 과제

첫째, 혈통등록사업의 미 확립된 상태에서 경주시행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혈통체계 미 확립으로 교잡마 생산 이용, 제주산 교잡마 경주용 이용기간 단축, 현행 출주마 자격기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마필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미흡과 사육기술 부족, 제주마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오래전부터 말사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규모두수가 적고 야산이나 임대지를 대부분 이용하여 방목형태로 사육되어 왔으며 경주마의 생산, 육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조련 기술마저 미숙한 실정에 있다.

셋째, 제주마 생산 마필의 거래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주마의 단증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제주마 보호와 증식을 위한 증장기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 교차 경주마의 활용은 바람직하며 현재 제주→서울 단방향 교차투표를 점차 늘려 쌍방향에 대한 검토와 지방 경마 확대 운영 시 전산망 또는 방송중계 운영 등을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현재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마 경주와 제주 교잡마 경주로 구분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제주마의 경우 우대 경주와 일반 경주로 구분되어져 있다.

현행 경마의 문제점으로 첫째, 경주마 자원의 이원화(제주마, 제주산(잡종)마)가 됨으로 경주 편성에 애로와 잡종화의 심화는 물론 능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현행 경주체계가 경주마 생산 지표와 연계성의 미흡 셋째, 속도 경쟁인 경마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경마에 부적합한 마종으로 판단될 수 있다. 넷째, 마필자원의 부족, 다섯째, 경주마 활용기간 저조로 인한 마주 재 투자비가 과다 지출, 다섯째, 경주의 질적인 면에서 경주의 흥미 감소 등을 지적할 수 있다(강태숙, 2000, 제주마 경주활용개선방안).

② 경주마 생산 및 활용에 따른 개선 방안

첫째, 제주경마장 내 순수 제주마를 이용한 경마가 급선무로 제주마산정책 중 생산마 경주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일부분에서는 미온적 대처로 이에 따른 경주 활용에는 어려운 과제들을 가져온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10년간 체계적인 제주마의 경주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자금 확대의 증장기 계획을 세움으로서 WTO 체제에 대비한 개방압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으로서 보호·개량·증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마 사육농가의 말사육 기반을 국공유지의 장기간 임대와 마을공동목장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목장확보와 시설투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마 육성목장 부지 확보는 제주도가 국공유지 면적 30만평 내외규모를 확보하여 300여두 규모의 사육목장을 조성, 운영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육성마(6개월령)를 수매, 24개월령까지 육성, 조련 후 마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경주 제도의 개선방안에서 제주마 혈통등록

사업이 이루어져 제주경마는 현실성과 경주마에 부합된 경주주체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주체계와 마필생산 지표와 연계하여 제주마의 잡종화를 방지하고 능력 우수마 추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마 생산자 협회 활성화와 마주 협회간 이원화 체계로 가야 할 것이며,

다섯째, 제주경마장 마권세 활용에 대한 건의로서 새천년 국제자유도시를 겨냥한 마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권세 1% 정도를 축산연구분야(가칭 말연구소)에 예산을 반영, 도차원에서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관광과 연계한 재래가축의 이용방안

(1) 관광과 연계한 축산물 먹거리촌 개발

① 제주재래가축 축산물의 특산물 개발

식생활은 그 지역의 갖고 있는 자연풍토, 민속전통, 생활습관 등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음식문화권이 국가나 지역간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는 4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으로서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활습관에 따라 전통적인 향토 음식이 발전해 왔을 것이라 생각하나 타 지방과 비교하여 그렇다할 특이한 향토음식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든다면 메밀로 만든 빙떡, 바다에서 잡아온 자리로 요리한 음식인 자리물회, 생선국(올태미), 갈치국, 토속주로서 좁쌀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축산물과 연계한 향토음식은 몇 가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돼지고기와 연관해서 보면 제주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것은 순대국밥과 돔배고기가 전부이었고 마을이나 가정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돼지를 추렴 도축해, 내장 일부분(간, 골, 내장일부, 쓸개 등)을 날 것으로 먹어 왔고 여러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순대와 돼지 삶은 국물에 몰망이나 무잎파리 등을 넣어 만든 몰망국(몸국) 혹은 나물국을 먹어 왔다. 돼지고기는 관혼상제 시 접시에 알뜰게 썰어 넣어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제주농촌지방에서는

그대로 풍습과 습관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암컷돼지를 추렴 시나 식당에서 새끼 돼지회(태아)를 맛볼 수 있는 영양만점에 향토음식으로 전수되어 왔으나 도축의 비위생적 면과 임신돈의 도축이라는 주위에 비난과 더불어 재료 구입이 쉽지 않고 요리에 진미를 내는 요리솜씨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의 어느 지역을 가던지 그 지역의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축산물과 연계된 먹거리 식품은 꼭 개발 보급하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에 갈 때 그 지방에 대표적인 음식은 "전주비빔밥"을 들 수 있다. 또한 향토 건강음식 충북의 맛 100선을 보면 한우, 돼지고기, 토끼, 사슴, 흑염소, 닭고기, 기러기, 오리, 꿩 요리와 민물고기, 곡류요리, 산채요리, 기타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한우나 돼지고기 요리를 보면 암소 한 마리, 양곱창구이, 양곰탕, 한우등심구이, 한우 토렴, 멧돼지 불고기, 토종 돼지구이, 돼지 양념구이, 오향족, 찹쌀순대, 순대국밥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연한 고기 맛이 일품인, 한우, 돼지고기 요리 중 암소 한 마리 소개는 재료, 만드는 방법, 효능, 특성을 칼라사진으로 찍어 설명하고 영자로도 표기되어 선전하고 있다(충청북도, 1996. 충북의 맛 100선 -향토건강음식-).

그렇다면 과연 제주에 왔을 때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향토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우리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과연 제주산 돼지고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돈육이 60% 이상 육지로 반출되고 있다고 볼 때 우리들이 식당에서 먹고 있는 고기는 과연 우리 제주산 토종 흑 돼지고기인가? 성읍리 민속촌에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제주 흑 돼지고기는 과연 흑 돼지며 제주산 고기인가? 만일에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가 아니라면 제주산 흑돼지 고기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영업주들은 관광객을 기만하고 사기를 하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축산물에 대한 바른 식문화를 정착시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제주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축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해 줌으로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그 지역에 향토음식을 오래도록 기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가축의 보존차원을 넘어 실용화 차원에서 제주마, 재래흑한우, 흑돼지, 재래닭을 우리 제주에 향토음식으로 뿌리내리도록 도차원에서 재개발화하거나 재검토하여 제주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 구마모토 지역의 경우는 말 육회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으며 햄, 베이컨, 소세이지, 말전포육, 마유, 쇼스 등의 제품개발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마육을 이용한 식당들이 20여 개소가 넘게 들어서고 있고 주문식, 뷔페식 코너도 마련되어 관광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곳도 있다.

앞으로 향토 말고기 가공식품을 만들어 관광객과 환자에게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말고기 통조림, 햄, 베이컨 등과 특수부위를 개발하여 지역 특산물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마사골, 마즙, 육포, 마골분(성인병 치료제)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특산품으로서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2) 재래가축을 관광과 연계한 생산단지화 방안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과 도민에서 숙박(민박), 레저(승마), 축산 등을 연계한 종합휴양지로서 축산을 관광자원 화하여 축산의 산 교육장(체험 교육장)으로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래가축으로서는 제주마, 흑한우, 재래흑돼지, 재래닭 등이 있다.

제주일원에 걸쳐 말 사육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흑한우, 재래흑돼지, 재래닭 사육장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들 가축들은 한 장소에 모여 "동물농장"을 만들어 그 주위에서 이벤트행사(예 : 투마, 투우, 돼지잡기, 돼지경주, 닭싸움 등)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줌으로서 이들 가축을 소재로 한 쇼들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추억

거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재래가축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는 제주마의 견월악 방목장에서 방목 시에 제주말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며 제 1횡단도로로 경유하는 경우 많은 신혼부부의 관광객들이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는 정도 밖에 못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견월악 종마장 방목지와 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인접해 있어 이들 단지를 잇는 좋은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잘 연계된 사업을 추진, 개발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3) 재래가축의 생산물을 실용화하는 방안

① 재래가축 생산물 먹거리촌 개발 전략

제주재래가축의 축산물을 일정한 장소에만 공급토록 하여 그곳에 가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적인 먹거리촌을 개발하는 방안도 관광객들의 먹거리 제공과 재래가축의 실용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관광과 축산이 연계한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여 제주에 "향토 축산음식물"의 개발함은 물론 축산물 생산농가에게는 보존과 실용화 사업으로서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상지 선정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주표선민속촌"과 "성읍민속촌"으로 가상해 볼 수 있고, 넓게는 시군 단위로 해서 우선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지정하여 재래가축 사육단지에서 생산된 가축을 이용도축하여 육가공업체(축협, 양돈조합 등)가 먹거리 장터에 있는 향토축산물촌(제주한우촌, 재래돼지촌, 제주마촌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줌으로서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는 재래가축의 맛과 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요리의 개발들은 제주도적인 향토음식점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겨냥한 마땅한 요리들이 추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내 재래가축과 연관된 협회는 다음과 같다.

- 재래가축인 「제주마 생산자 협회」
- 「제주재래흑한우 한우단지」 중심 혹은 「한우협회」
- 「재래흑돈」 및 「흑돼지 보존협회」
- 「재래닭 보존협회」 등

위의 4개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사육단지를 조성하고 단지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계통출하하여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 협회에서는 사업계획의 목표설정을 하고 연간 출하두수 확보와 교배체계를 세워 비육, 생산하여 유통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게는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재래축산물인 말고기, 흑한우고기, 흑돼지, 재래닭고기 등을 시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부연한다면 맛있고, 싸고, 위생적이고, 안전성 있는

축산물이어야 하며 요리의 개발은 단순하고 다양화한 것으로 개발이 바람직하다. 관광과 연계된 먹거리촌(장터) 개발 모델을 참고로 제시한다(그림1).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지난해(제주신문, 2001. 11.10) 제 1회 서귀포 청정 축산물 축제 행사를 향토 오일장에서 양일간(10~11일) 실시한 것은 제주 축산물의 우수성과 청정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향토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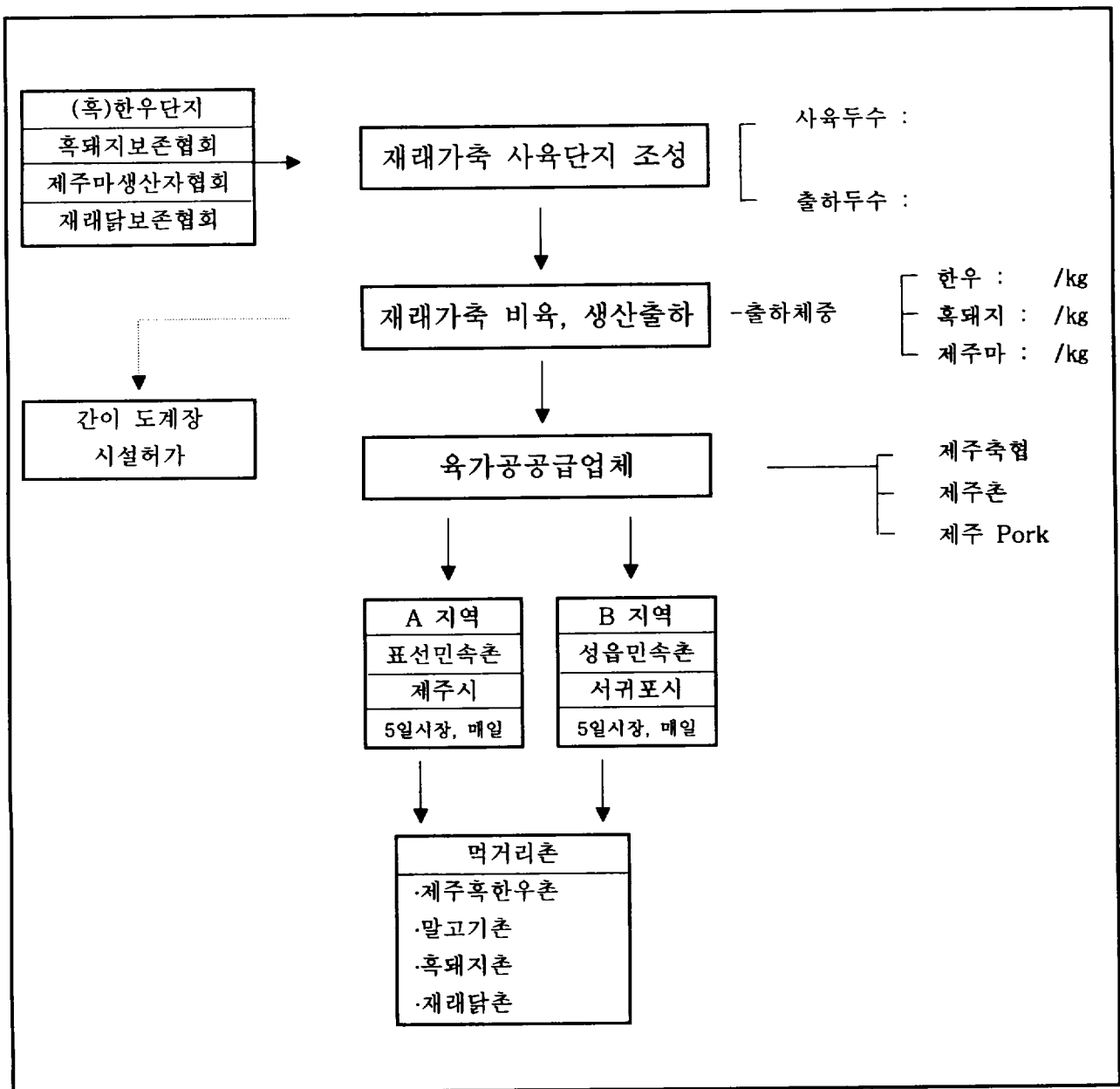


그림 1. 관광과 연계된 먹거리촌 개발 모델

여기에서 추가된 행사로 한우, 돼지, 삼살개 등 각종 동물 34마리가 출품된 현장체험이러는데 대하여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몽골 마상쇼, 중국 서커스 묘기, 돼지고기 경영대회, 명견 훈련묘기, 동물잡기 대회 등이 열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5일장 혹은 연중 먹거리촌을 개발하여 관광과 재래가축(흑한우, 흑돼지, 제주마, 제주견, 재래닭 등)이 연관된 행사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향토음식의 맛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교래리 일대에 축산분야와 연관된 관광자원화 상품개발시도

교래리 지역일대에 축산분야와 연관된 관광자원화 상품개발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동부 중산간지역 교래리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미니월드(소인국)"와 100m내외에 "산굼부리" 관광지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 "돌 박물관"도 이들 지역에 설치 예정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점들을 축산분야와 잘 연관 시킨다면 제주도 내에서 멋진 관광지대와 코스가 되며 많은 개발에 가치를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평소 생각했던 바를 축산(재래가축)과 연관하여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들 교래리 지역 관광지에 우리 축산분야로서는 한국마사회 육성마목장과 제동목장, 한국개량마 생산자 협회, 승마장 3개소, 사슴농장 2개소, 대원목장, 태경, 중앙, 대천 말 목장 4개소가 산재해 있고, 음식점(가든포함)으로는 20여 개소 이상, 민박 시설 등이 이미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개발하기에 아주 적격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교래리 지역 관광코스를 보면
한국마사회 육성마목장 → 제주 삼다도생수공장 → (대원목장 → 선홍한우단지목장 → 조천마을공동목장 → 돌 박물관) → 미니월드 → 한국개량마 생산자 협회 → 산굼부리 → 태경, 중앙, 대천말목장 → 정석우주비행장 → 제동목장 → 교래리 입구

이 곳 미니월드나 산굼부리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공항이나 시내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교래리 까

지 매시간 손님들을 운송하도록 한다.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물론 각 장소마다 1시간 간격으로 관광시간을 충분히 주어 일정한 장소에 순환도로를 만들어 운반수단을 단케 철도나 순환열차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각 역을 10개소 설치하여 역마차(재래마)로 목장으로 안내하고 팀별로 관람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자한다.

하루 종일 놀고 쉬고 갈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는 아주 적합한 연관을 지어주고 있다.

□ 한국마사회 육성마 목장 견학관광코스

(1-2시간소요)

○ 목장소개(홍보차원)

- 관광객들을 위한 영상물 제공(마사회 육성마 목장소개 20~30분)
- 종모마 마방안내소개 (10억~30억 원대 명마 소개)
- 종모마 종부 쇼 관람(3~7월)
- 사진촬영(폭포주변), 휴식

○ 제2목장소개

- 육성마 사육훈련과정 소개 (연습주료, 수영훈련)
- 육성마 경주훈련(트랙경기)
- 육성마 마방견학
- 육성마 진료소 견학 등

□ 제주 삼다도생수공장 견학코스

- 생수공장 설치배경과 현황과 전망 - 영상물 제공
- 삼다수 제조 공정과정 견학
- 야외 휴식시간 제공 등

□ 제동목장

- 제동목장의 설치배경과 현황 - 영상물 제공
- 축종별 견학 - 한우, 앵거스, 헤어포드, 말 등의 가축품종견학
- 축사 및 부대시설, 장비 전시
- 기계화된 목장 견학
 - 목초파동 : 경운작업 → 파종 → 수확 (봄, 가을 파종 수확시)
 - 목초제조 : 청초, 사일래지, 건조, 제조과정
- 생수공장 공정과정 견학
- 원예자동화 시설 견학 → 기내식 채소, 피망, 방울토마토 재배 등
- 열대과일 재배현장견학 등

- 정석비행장 소개
- 정석우주관 관람
 - 대한항공 초창기 → 현대사까지 소개
 - 전시물 관광
- 대천목장, 중앙목장 등
 - 목장 내 견학 : 말 사육 마사, 마방, 성마, 육성마, 자마
 - 트레킹 체험 관광 : 말 타고 운동장 트랙 돌기
 -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씨클 활동을 중심으로 한 말과 이해(교육장으로 활용)
 - 휴양목장-산책로 개발(넷가주변)
 - 야영장 등
- 승마장(제주, 탐라, 서진)
 - 기존 승마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어린이 일반인등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과 안전수칙준수(낙마등), 시설보완, 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
 - 청소년을 위한 종합 놀이터, 아동용 놀이터, 유치원 이하 놀이터 제공
- ※ 기대효과
 - 각 목장, 기업체마다 소개되므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 생수공장의 만들어지는 공정도 소개 → 삼다수 소개와 물의 귀중함 홍보효과
 - 말고기, 흑돼지, 흑한우, 재래닭 → 관광객들의 수준에 따라 시식을 할 수 있게 장소제공 → 재래가축 보존, 실용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 말고기 가공공장(교래리 건설)서 제조되는 제품 → 홍보소개
 -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오름, 넓은 들판에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 등은 관광자원의 가치가 높음
- (5) 동부 산업도로변 성읍지역 승마장을 1권역으로 묶어 개발

대천동에서 성읍 2리까지 7개 승마장(바우, 정의, 성읍, 알프스, 동부, 오케이, 조랑말 타운)이 집중적

으로 모여 있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그들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 업종에 종사하는 업자들(승마장 운영)끼리 한 자리에 모여 이들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 좀더 아이디어를 갖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곳에서도 서부산업도로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 승마장"과 같이 개인업주에 의해 마상 쇼를 제공하여 손님을 끌고 있다. 앞으로 가칭 "성읍승마장 동아리"에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야외관람석까지 갖춘 시설을 보유하여 투자에 대한 이익을 고르게 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협회차원에서 공동사업(예 : 조상들의 농경생활 재연 등)을 계획하고 정하여 이를 도 문화공보부, 농수축산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 승인을 얻은 후 자금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현재 승마장 수가 적정한지 여부와 통폐합하여 규모화하고 서비스를 좀더 강화하여 영원히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읍 지역에는 우리 조상들이 말을 이용한 농경생활의 모습을 재연할 수 있게 "영상물화"하여 발 밟는 소리를 녹음하여 재현케 한다든지, 아니면 실지 현장에서 갈웃(갈중이)을 입고 말떼우리를 30-40필을 이용하여 조밭, 육도밭(신의밭)을 말발꿈으로 밟는 광경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이며, 외국인에게도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가칭 "성읍승마장 동아리"에서 (입장권의 수입과 판매금을 한 창구에) 한기 업체에 운영이나 꼭 같이 생각하고 조직하여 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제반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읍승마장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성읍민속촌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말과 관련된 옛 것들을 사료에 의한 발굴 재연하여 대민 관광으로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광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동부지역 승마장들을 권역화하여 제주마와 연관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은 이들 지역 주민들의 삶이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교래

리 관광과 연계된 목장권역과 성읍승마권역, 성읍민속촌, 표선민속촌 간에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 연결하여 차별성을 이어간다면 동부지역 중산간 일부는 축산과 연계된 관광지로 타 지역에 비해 보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부 지역권인 이시들, 애월봉성, 어음 등은 추후에 구상 발표하기로 하겠지만, 들불축제 때 주변지역에서 선보인 "조랑말싸움"은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봉성리 새별오름 옆 그린리조트 관광목장에는 320석 규모의 세계 유일한 제주마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에서 전통 마상무예는 말과 기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펼치는 백제의 무예는 볼 만하다.

(6)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 자유도시화에 대비한 제주 재래가축 축산물 우수성 개발

국제자유도시는 「일반적으로 관광, 쇼핑, 물류, 교육, 정보, 금융 등을 제반경제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 공간으로서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수입자유화와 무관세 수입 허용을 촉구하게 됨으로서 제주산 농축산물의 판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¹⁾. 축산분야에서는 경마, 승마 등 축산관련 관광시설을 이용한 즐길 거리 제공 및 기존 축산 단지 등을 이용한 관광 벨트화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특히 제주는 광활한 초지를 갖고 있어 초식가축 사육에 유리하며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재래가축인 흑한우 등을 유전자 자원 보존과 새로운 육종 개발을 통한 증식개발연구(BT산업연관)에 목표를 두어 품종을 특화함으로써 수입 축산물인 쇠고기와 품질 차별화를 시도하여 고품질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물의 HACCP-FCG (Fresh air: 맑은 공기, Clear water: 깨끗한 물, Green fields: 푸른 초원)를 브랜드화 함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양축가에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5월 말에 제주 지역 청정화 선언이 OIE(국제수의사무

국)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서 특화된 제주산 축산물은 세계화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청정 고품질 축산물로서, 안전성을 인정받는 축산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주산 축산물은 가공,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적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의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제주형 FCG 브랜드화로 시장 차별을 기하는 길만이 제주 축산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주에 찾아왔을 때 축산환경이 좋지 않아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축산분뇨는 유기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서 신선한 과일, 채소류를 제공함은 물론 흙살리기 운동과 연계한 축산 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독특한 농경생활 문화와 함께 재래가축(제주마, 재래흑한우, 재래흑돼지, 재래닭)들이 많이 사육되어져 왔다.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에서 재래가축의 보존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오늘날까지 이들 가축을 보존, 사육하면서 증식과 더불어 실용화 사업을 전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재래가축은 보존차원을 넘어 실용화 차원에서 재래흑한우, 흑돼지, 재래닭을 우리 제주에 향토 음식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개발이 필요하며, 제주재래가축의 축산물을 일정한 장소에서만 공급토록 하여 그곳에 가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적인 먹거리촌 개발 (향토 축산물촌인 제주(흑)한우촌, 재래돼지촌, 제주마촌, 제주재래닭촌 등) 이 검토되어 지속적으로 공급해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 재래가축의 맛과 질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어야 한다.

여가를 즐길려는 관광객과 도민에서 숙박(민박), 레저(승마), 축산등을 연계한 종합휴양지로서 축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축산의 산교육장(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관광목장 도입)하다.

1) 우근민, 제주도 전 지사,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 농수축산물의 미래, 1999. 7. 농축수산물유통전문가과정 강의 교재.

제주일원에 걸쳐 말사육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흑한우, 재래흑돼지, 재래닭 사육장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들 가축을 한 장소에 모여 동물농장을 만들어 주기적인 이벤트 행사 (말싸움, 소싸움, 돼지잡기, 닭싸움 등)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재래가축을 소개하는 기회와 볼거리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래리 일대에 축산분야에 연관된 관광자원화 상품개발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 교래리 지역 관광단지에 축산분야로는 한국마사회 육성마목장, 제동목장, 한국개량마 생산자협회, 승마장 3개소, 사슴농장 2개소, 대원목장, 태경, 중앙, 대천 말목장 4개소 등이 산재되어 있다. 기존 "미니월드" "산굼부리" 관광지가 있고 "돌박물관"도 설치예정지로 되어 있어 이들을 잇는 단궤철도나 순환열차를 이용하여 목장과 관광지를 순환하도록 하고 시내(공항 등)에서 교래까지 순환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축산(재래가축)과 관광산업의 연결된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부산업도로변 성읍지역 7개 승마장(바우, 정의, 알프스, 동부, 오케이, 조랑말 타운)을 1권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칭 성읍 승마장 동아리 협회를 조직 공동출자, 공동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재래가축을 이용한 관광과 연계된 특산물화는 첫째로 "제주마를 이용한 경주"로서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용실의 확충, 통역요원의 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이한 볼거리 개발 및 제공 등의 뒤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재래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향토음식"으로 개발하여 내도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예 : 마육, 흑한우 고급육, 흑돼지고기를 이용한 먹거리촌 개발). 셋째는 축산업(1차산업)과 관광(3차산업)의 연계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도 축산업을 청정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태숙, 1999. 12. 제주마 경주활용 개선방안, 동물과학연구소, 한국마연구회
- 강태숙, 2000. 9.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동물과학연구소, 제주도 양돈연구회
- 강태숙, 1999. 제주산 한우생산비 절감 및 시장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동물과학연구소
- 김경택, 1999. 7. 말을 소재로 한 테마 관광상품개발 방안, 한국관광 농업학회, 제주대 아열대 농업연구소.
- 김규일, 1991. 6. 축산 외 사업을 통한 축산농가소득증대 방안, UR대비 제주축산발전방향 심포지움, 제주시시험장
- 김지순, 2001. 12. 돼지고기와 건강, 제주지역축사모
- 노경상, 2001. 11.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한국축산 경영학회, 농협안성교육원
- 농림부, 축산물 등급판정소, 2000. 2001. 우회축산물 브랜드 편람
- 농촌진흥청 제주시시험장, 1991. 6. UR대비 제주축산발전 방향 심포지움
- 동물과학연구소, 2000. 11. 동물생산을 위한 새로운 자원과 기술 세미나-제주 흑한우의 개량 및 증산
- 동물과학연구소, 한국마연구회, 1999. 12. 제주마의 보존 및 활용 심포지움, 제주도
- 동물과학연구소, 제주양돈연구회, 2000. 9.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발전방향
- 문창래, 2000. 9. 제주양돈산업의 발전방향, 동물과학연구소, 제주도 양돈연구회
- 밀양대학교 농업기술개발 연구소,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마연구회, 2000.12. 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
- 아열대농업동물과학연구소, 2001. 11. 제주흑돼지 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 이현중, 1999. 12. 제주마 불용마의 활용, 동물과학연구소, 한국마연구회
- 양영훈, 2000. 11. 한우의 개량체계, 동물과학연구소
- 양영훈, 2001. 11. 제주재래돈의 육종방안, 아열대농업동물과학연구소

- 양승주, 2001. 11. 제주지역 흑돼지 사양관리 개선 방안, 아열대농업동물과학연구소
- 양보석, 2000. 11. 신기술을 이용한 흑한우의 증식, 동물과학연구소
- 연구영, 이병오, 2001. 12. 일본의 축산물 브랜드화 전략에 관한 연구 축산경영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
- 오영익, 2001. 11. 양돈농가에서의 흑돼지 생산 및 유통사례, 아열대농업동물과학연구소
- 유철호, WTO. 농촌산문협상과 대응방안, 제주지역축사모
- 이상영, 우영목, 2001. 11. 축산물 브랜드 성공사례 발표- 안성마춤한우 한국축산경영학회, 농협안성교육원
- 이병오, 연구영, 2001. 11. 일본 축산물 브랜드 현황 및 방향, 한국축산경영학회, 농협안성교육원
- 정창조, 강태숙, 박영일, 김승호, 1981. 11. 제주마의 보호증식 및 이용성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도, 2001. 1. 축산사업추진계획
- 제주도, 2001. 1. 마필산업진흥계획(안)
- 제주도, 2001. 10.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
-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 2001. 2001년도 제주경마시행 계획
- 한성일, 최승철, 연구영, 윤해량, 2001. 11. 우리축산물브랜드 육성 정책 농림부 연구용역 보고서
- 현우범, 1999. 12. 제주마 혈통 보존 및 이용계획, 동물과학연구소, 한국마연구회